김천시청 올림픽메달을 부탁해

손완호·장예나·고성현·신백철 소속
리우올림픽 배드민턴 4종목 출전 기대


박보생 김천시장

올림픽 효자 종목 배드민턴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출전자 명단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적으로 저변이 넓은 배드민턴은 올림픽 출전 티켓을 놓고 이미 지난해 초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져왔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다음달 5일 올림픽 출전 명단을 최종 발표한다.

단식은 세계랭킹 1~16위까지 출전이 가능하다. 단 16위 이상 선수라 하더라도 1개 국가에서 2명 이상 출전할 수 없다. 복식은 세계랭킹 8위가 올림픽 티켓 합격선이다. 역시 한 국가에서 2팀까지 출전할 수 있다.

각 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다음달 5일 전까지 단 1점이라도 더 많은 랭킹 포인트를 쌓기 위해 쉴 틈 없는 국제대회 투어에 참가하고 있다.

3일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체육관에서 2016년 셔틀콕 실업리그 시즌을 개막하는 2016 전국봄철 종별배드민턴 리그전이 시작됐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한 이유다.

한국대표팀은 5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에 참가하고 12~17일 싱가포르 오픈, 19~24일 중국 그랑프리 골드, 26~5월 1일 아시아선수권까지 일정표가 빼곡하다. 특히 말레이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는 등급의 대회다.

김천시청은 이번 대회에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전해질 승전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김천시청은 소속 선수 중 손완호가 남자단식 세계랭킹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장예나가 이소희(인천국제공항)와 함께 여자복식 7위, 고성현과 신백철이 남자복식 4위다. 고성현은 김하나(삼성전기)와 혼합복식에서도 2위를 기록 중이다. 모두 현재 랭킹을 유지하면 리우데자네이루행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출전이 확정되면 김천시청은 총 4명이 4개 종목 금메달에 도전하게 된다. 이용대(남자복식 1위), 김하나(혼합복식 2위), 신승찬(여자복식 6위)이 안정권인 삼성전기를 뛰어넘어 국내 배드민턴 실업팀 중 가장 많은 올림픽 출전 선수를 배출하게 된다.

김천시청은 박보생 시장이 지난해 V리그 도로공사 연고지를 유지하고 유도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를 매회 개최하는 등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배드민턴 팀 역시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권성덕 김천시청 배드민턴 감독은 "감독으로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매우 뿌듯하고 기쁜 일이다.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모두 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고성현이 최근 상승세다. 혼합복식에서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꼭 올림픽에 나가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인천국제공항 최혜인(앞)-김소영 조가 6일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2016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여자일반부 B조 조별예선에서 김천시청의 이연화-정율교 조와 4복식 경기를 하고 있다.
김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여자 일반부 스카이몬스 '5전 전승' 4강 확정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 일반부

김천시청 3승1패·세아창원 2승2패
남자부 MG새마을금고 B조 2위로

MG새마을금고가 백전노장 이현일(36)의 활약 속에 2016년 셔틀콕 시즌 첫 대회 2016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4강 진출에 바짝 다가섰다.

MG새마을금고는 6일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일반부 조별예선 4일째 B조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몬스와의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MG새마을금고는 3승1패 승점 8을 기록, 스카이몬스(3승1패·승점4)를 3위로 끌어내리고 2위에 올랐다.

1단식 주자로 나선 이현일은 스카이몬스 이홍제를 만나 노련한 완급조절을 보여줬다. 1세트를 22-20으로 힘겹게 이겼지만 2세트는 21-9로 압도하며 2-0으로 경기를 끝냈다. 2단식에서 MG새마을금고 김민기는 홍지훈을 2-1(21-18 17-21 21-13)로 이겼고, 3복식에서 강지욱-이상준이 김경태-조성준을 2-0(21-14 21-12)으로 이기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여자 일반부 B조에서는 신흥강호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몬스가 이효정이 버틴 김천시청을 꺾고 5전 전승 승점 10으로 1위를 굳게 지키며 4강 진출을 확정했다. 1단식에서 스카이몬스 고은별은 김천시청 고현정과 1세트 치열한 듀스 접전 끝에 23-21로 이기며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도 21-15로 승리했다. 2단식에서 스카이몬스 김수진이 이연화를 2-0(21-19 21-14)으로 꺾었다. 김천시청은 3복식에서 이효정-고현정이 관록을 뽐내며 고은별-박소영을 2-0(21-16 22-20)으로 이겼다. 그러나 스카이몬스는 4복식에서 최혜인-김소영이 이연화-정을교를 2-0(21-6 21-4)으로 크게 이기며 승부를 갈랐다. 김천시청은 3승1패 승점2로 2위를 지켰다. 같은 B조의 세아창원특수강은 전북은행을 3-1로 이겨 2승2패 승점 -3으로 4강 진출을 위해 김천시청을 바짝 뒤쫓았다.

김천 | 이경호 기자

2016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김천) 경기결과 (6일)

- 남자 일반부 단체전 A조=밀양시청 3-2 삼성전기, 수원시청 3-0 고양시청, 요넥스 3-0 충주시청
- 남자 일반부 단체전 B조=김천시청 3-0 광명시청, 상무 3-0 성남시청, MG새마을금고 3-0 스카이몬스
- 여자 일반부 단체전 A조=포천시청 3-1 시흥시청, KGC인삼공사 3-1 화순군청
- 여자 일반부 단체전 B조=영동군청 3-0 삼성전기, 스카이몬스 3-1 김천시청, 세아창원특수 3-1 전북은행
- 남자 대학부 단체전 A조=인하대 3-0 백석문화대, 한체대 3-0 동양대
- 남자 대학부 단체전 B조=동의대 3-0 한림대, 경희대 3-0 중앙대, 대구가톨릭대 3-0 세한대
- 여자 대학부 단체전 준결승전=한체대 3-0 군산대, 부산외대 3-2 조선대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JDX와 함께 하는 김도훈의 골프 솔루션 4 로프트 세워서 퍼팅하면 직진성 나빠져


❶볼은 왼쪽 눈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립은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잡아 준다.


❷머리가 볼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으면 스트로크 때 몸이 따라서 회전하는 실수를 하게 돼 정확한 퍼팅을 하지 못하게 된다.


❸일부러 로프트를 세워서 퍼팅하면 볼의 회전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면 통통 튀었다가 굴러가는 스키드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어드레스 때 공은 왼쪽 눈과 일직선상으로

3~5도 설계된 퍼터 로프트 고려
세워 타격하면 스키드 현상 발생

퍼팅은 드라이브샷이나 아이언샷의 기술에 비하면 매우 간단하다. 스윙을 크게 할 필요도 없어 큰 실수를 저지를 확률도 높지 않다. 그러나 43mm의 골프공을 108mm의 홀 안에 집어넣기 위해선 정확해야 한다.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어드레스부터 점검해보자. 아마추어 골퍼들의 어드레스는 말 그대로 '멋대로'인 경우가 많다. 골퍼 스스로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퍼팅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기본을 무시한 자세는 좋지 않다. 흔히 볼 수 있는 실수는 어드레스 때 머리의 위치가 지나치게 볼 앞쪽에 머물러 있는 경우다. 이런 자세에서 퍼팅하면 임팩트 순간 몸이 따라 돌아가면서 공을 퍼터 페이스의 중앙에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는 실수가 많이 나온다. 어드레스 때 공은 왼쪽 눈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일부러 퍼터 페이스의 각도를 세워서 퍼팅하는 골퍼들이 많은데 이 역시 좋은 퍼팅 방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퍼터의 로프트는 3~5도 정도 된다. 로프트의 역할은 공을 잘 구르게 하는 것이다. 3~5도로 설계된 건 퍼팅한 공이 지면에서 살짝 떠올랐다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일부러 로프트를 세워 퍼팅하는 골퍼들이 많다. 로프트가 0도(직각)에 가까워지면 공을 더 잘 굴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퍼팅하는 프로골퍼들도 많다. 또 그린의 스피드가 느린 경우 이렇게 퍼팅해서 일부러 공의 회전력을 높여 같은 힘으로 더 많이 굴러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다. 대부분은 퍼터의 로프트를 그대로 이용한다.

실제로 로프트가 직각(0도)에 가까워질수록 공의 회전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타격하지 않으면 공이 통통 튀었다가 굴러가는, 일명 '스키드(skid)'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거리 조절이 쉽지 않고 공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로프트를 3~5도로 설계한 이유는 바로 이런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즉, 로프트를 변형해 사용하는 것보다 원래대로 퍼팅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도움말 | 프로골퍼 김도훈
정리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김해림·배선우·안송이…KLPGA 데뷔 첫승 노린다

오늘 개막 롯데마트여자오픈 출전
상승세 이정민·조윤지도 우승후보

중국과 베트남 원정투어를 끝낸 여자 골퍼들이 제주에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다.

7일부터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롯데마트 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우승상금 1억 2000만원)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실질적인 개막전 성격을 띤다.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중국과 베트남에서 세 차례 대회를 치렀지만, 순수 국내 선수들만 출전하는 풀시드(120명)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LPGA 투어의 메이저대회 ANA인스퍼레이션에 출전한 박성현(23)과 고진영(21)이 빠지면서 살짝 김이 빠진 건 사실. 또 지난해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접었던 허윤경(26)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KLPGA 투어엔 여전히 강자들이 많다. 시즌 2승을 노리는 이정민(24·비씨카드)과 지난해 상금랭킹 3위에 오른 조윤지(25·NH투자증권), 생애 첫 우승을 노리는 김해림(26)과 배선우(22), 안송이(26), 김지현(24), 지한솔(20), 박결(20), 박지영 등이 롯데마트 챔피언십의 우승트로피를 정조준하고 있다.


7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제9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을 하루 앞두고 김해림과 김보경, 장수연(왼쪽부터)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선전을 다짐했다.
사진제공 | KLPGA

3월 중국에서 열린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린 이정민은 대회가 열리는 골프장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 왔다. 작년 롯데마트여자오픈에서는 4위, 대회는 다르지만 같은 코스에서 열린 롯데칸타타여자오픈에서 우승을 경험했다.

작년 데뷔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조윤지는 올 시즌 아직 우승이 없다. 그러나 2개 대회에 출전해 공동 13위(월드레이디스)와 14위(달랏1200챔피언십)를 기록하는 등 서서히 샷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해림, 배선우, 안송이, 김지현, 지한솔, 박결, 박지영, 장수연 등은 데뷔 첫 우승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작년에 우승 없이도 상금랭킹 9위에 오른 김해림과 준우승만 2차례 기록한 배선우는 올 시즌 KLPGA 투어를 뜨겁게 달굴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마스터스 챔피언스 디너는 '텍사스 바비큐'

마스터스는 전통과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볼거리와 화젯거리가 많다. 개막 이틀 전 디펜딩 챔피언이 대접하는 '마스터스 클럽 디너'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

올해 마스터스 클럽 디너를 대접하는 주인공은 지난해 우승자 조던 스피스다. 전통적으로 마스터스 클럽 디너는 디펜딩 챔피언이 메뉴를 정해 '챔피언스 디너'라고도 불린다. 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회원과 역대 챔피언들이 초대된다. 이 특별한 저녁 만찬은 1952년 벤 호건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후 전통이 됐다.

스피스가 선택한 메뉴는 '텍사스 바비큐'다. 스피스는 텍사스 주 댈러스 출신이다. 애피타이저로 샐러드, 메인 메뉴로는 정통 텍사스 바비큐, 후식으로 초콜릿 칩 쿠키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

마스터스는 특별한 조 편성으로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출전자가 89명인 관계로 29개 팀은 3명씩 조를 이뤄 경기하고, 스티브 보디치와 짐 허먼만 둘이 경기한다.

디펜딩 챔피언 스피스는 대회 전통에 따라 US아마추어챔피언십 우승자인 아마추어 브라이슨 디섐보 그리고 폴 케이시(잉글랜드)와 함께 경기한다. 한국시간 7일 밤 8시48분에 경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세계랭킹 포인트 100점이 주어진다. 보통 50~60점인 일반 PGA 투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세계랭킹 1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1위 데이(12.3776점)와 2위 스피스(11.0002점)의 차가 약 1.3점 밖에 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1·2위가 바뀔 수도 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